

4 복음은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

원의 주체를 그리스도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까?"

무의미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순서가 뒤바뀌었을 뿐입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은 내가 주일 성수를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했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수요예배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와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기에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선행을 더 열심히 하고, 봉사를 더 열심히 해서 내가 구원의 길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으로 내가 변화되어서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선행과 봉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것 뿐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온전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복음외에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구습이나 문화'를 복음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복음 위에 지나친 교리를 덧입힐 때가 있습니다. 때로 복음 위에 우리의 유교적인, 샤먼적인 문화를 덧입힙니다. 한국인에게는 특별히 기복신앙이 그렇습니다. 내가 쌓는 공로를 강조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으로 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낼 수 있다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에서는 맞몬주의가 그렇습니다. 작은 것

5 모든 것이 은혜

보다는 큰 것을 사모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부와 성장주의를 꿈꾸는 맞몬의 문화가 복음안에 섞여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습과 문화는 일종의 옷일 뿐입니다. 복음을 덮는 그릇일 뿐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옷을 바꾸어 입듯이, 구습과 문화는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합니다. 결코 그것이 복음을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었고, 유대교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지만, 이 모든 것(문화, 구습, 형식)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아무런 이득도 없고,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먼저 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될 유대교의 종교적 문화와 구습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복음 외에 무언가를 추가적으로 더 해야 만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은혜'는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공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 만큼 했기에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안에 은혜는 없어지고 공로가 커져서, 감사보다는 교만으로 가득차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셨다고 했습니다. 오직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갈 1:6, 개역개정)

[최진영 목사]

www.weppc.net 홈페이지에서도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강해(2)

Galatians 1:6-10

지난주 수요성경강해 2022년 7월 13일 (수)
파사데나장로교회



1 다른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 지방을 지나가는 어떤 '교사들'에 의해서 다른 복음을 듣습니다. 이 복음은 바울의 복음과는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먼저 받은 복음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사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을 이제 참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은 유대교-그리스도인들로서 유대교 전통(복식, 음식, 정결법, 할례, 규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 받는다는 '복음' 외에 덧붙일 무언가가 더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복음으로 충분치 않고, 예루살렘 교회의 가르침과 모세의 법, 율법이 첨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사람들(바울에 의하면 '거짓형제들')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당시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교회는 갈라디아 지역 외에도 다른 곳에도 더러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이니." (고후 11:4, 새번역)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안디옥 교회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행 15:1)

"교사들"은 이방인들을 만나면 험박하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도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2 다른 복음은 없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놀랐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 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갈 1:6)

하나님께서서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은혜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다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가 신에게 뭔가를 먼저 주어야 합니다. 그 때 신이 우리를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 그것만으로는 안된다. 은혜 더하기 뭔가를 더 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퍼진 다른 복음의 메세지였습니다. 그 '다른 복음'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었습니다. 갈라디아교회에 일종의 바이러스가 퍼진 것입니다.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사람들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복음을 저버립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 다른 복음을 무효화 시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하는 것 뿐입니다." (갈 1:7)

그러면 어떤 다른 복음과도 다르다는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도 이와 같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로마만 카톨릭 교회를 보면서 병폐를 보게 됩니다. 당시 교회는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복음"만

3 '복음'이란 무엇인가

으로는 안된다. 너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라며 '복음' 플러스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때로 그것은 교회의 구습이기도 했습니다. 때로 그것은 선을 행하라는 강요이기도 했습니다. 교리를 지킬 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에 갈라디아서를 읽는 루터는 바울을 통해 깨달음을 얻습니다. 다른 복음이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 외에 우리가 의로워 질 수 있는 길은 없다" 이렇게 선언 포함합니다. 루터는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의와 '인간의 행함에 인한 의' 사이에 어떤 점정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은 다만 여러분의 자신의 의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단순하고 명쾌한 진리를 쉽게 믿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예수님의 하신 일,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 그것으로 구원을 위한 조건은 충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 추가되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요? 우리로 공로로 구원의 길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고통 가운데 죽으셔야 했을까요?

나같은 죄인이, 실수 많고 부족한 내가 십자가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나의 공로를 내세우려는 것입니다. 구